



## **The Mediating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a Relationship Between Co-dependency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of University Students'**

**Hee-Ryong Park\***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imcheon University*

---

### **A B S T R A C T**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dependency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a relationship between co-dependency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In this regard, this study collect the data from 160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4 universities located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buk. Some of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include. Firstly, co-dependency,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covert narcissism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Secondly, co-dependency not only makes direct effect on the maladaptive perfectionism, but makes indirect effect through a mediating variable, the covert narcissism, as well that covert narcissism is verified to mediate a relationship between co-dependency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covert narcissism of university students impoverish when co-dependency is higher, and can make effect on the maladaptive perfectionism due to continual phenomenon of losing general function of life. This study investigate how counselors can convergence policy approach with parents-experience of clients that affect a relationship between co-dependency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of university students, and suggested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a follow-up study.

© 2016 KKITS All rights reserved

---

**KEYWORDS :** Co-dependency, Maladaptive perfectionism, Covert narcissism, Counseling

---

**ARTICLE INFO:** Received 26 October 2016, Revised 12 December 2016, Accepted 12 December 2016.

---

---

\*Corresponding author is with the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imcheon University, 1214, Daehak-ro, Gimcheon-si, Gyeongsangbuk-do, 39528,

KOREA.

*E-mail address:* [hrpark@gimcheon.ac.kr](mailto:hrpark@gimcheon.ac.kr)

## 1.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매우 빠르고 복잡하며 다양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현대사회는 일에 대한 정확성과 완벽한 일처리를 하는 인간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같은 완벽함의 특성을 사람들에게는 유능함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완벽주의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또한 최고가 되기 위해 더 경쟁적인 것을 요구하고, 한 사람의 개성을 강조하며, 독특하고 창의로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완벽주의와 자기애적 양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한 현상이며 특징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이 지나친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큰 고통을 겪게됨은 물론,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방해하고, 사회적응에 있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성장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의존하며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으로 인격발달에 방해를 받았거나, 독립성이 발달하지 못했을 경우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즉, 의존할 만한 외부의 대상을 찾아다니며, 타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넘기면서 점차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려는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24]. 이와 같이 이성회는 자기 자신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요구나 행동을 중요시 함으로써 자기희생적 돌봄과 과도한 책임감, 강박적 행동으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는 현상으로 보았고[1], 이러한 현상을 Whitfield는 공동의존성이라고 하였다[2]. 공동의존성에 대한 연구는 알코올중독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가 되었으나 점차 개념이 확대되어 가족사적 선행요인, 부모의

양육태도, 어린 시절 외상적 경험 및 가정의 일반적인 역기능[10]-[14]과 식이장애 또는 알코올리즘과 관계없는 물질의존은 물론 타인에게 자신의 욕구를 맞추어야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어떠한 유형도 공동의존성을 유발한다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3]. 따라서 공동의존자들은 항상 그들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 불안정과 생각이나 느낌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정서적 고통(emotional pain)을 지속적으로 호소한다[4][5]. Whitfield는 공동의존성에 대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질현’이라 하면서, 만일 공동의존자가 자신의 내부와 외부 초점에 균형을 맞추고, 자신의 참자기(true self)를 찾게 된다면 공동의존성으로부터 건강한 의존성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2]. 만약 공동의존성으로부터 건강한 의존성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의존에서 정서적 독립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의존성에서 건강한 의존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병리적인 의존관계가 아닌 성숙한 대처방식을 익히는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에는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로 나누어지는데,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는 겉으로는 거만하고 과시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 자기애적인 역동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자존감이 낮다[20]. 이들은 자신이 잘못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지 늘 타인의 반응과 표정을 살피며 자존감에 손상을 입거나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한다[19]. 그러므로 이러한 낮은 자존감을 가진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정을 지나치게 원하게 된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스스로

예상하면서 불안을 경험하며 고통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웅대한 자기상을 포기하지 못하며[21][25][26],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게 된다. 완벽주의(perfectionism)는 수행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완벽해지고자 하는 성격특성으로 심리학과 상담학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변인이며, 일상적으로도 개인의 성격 측면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Frost 등은 완벽주의자의 심리적 문제가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난적 자기 평가와 더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완벽주의를 ‘수행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며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기에게 명백한 비난적 평가를 내리는 성향’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판’,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의 6개의 차원으로 완벽주의를 설명하였다[22]. 즉, 첫 번째 차원인 실수에 대한 염려는 (Concern over mistakes) 실수를 실패와 동등하게 해석하며 타인의 존경과 관심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개인적 기준(Personal standards)으로,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경향과 긍정적 자기개념을 포함한다. 이는 긍정적 성취추구, 효능감, 긍정적인 정서와 일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차원은 부모의 기대(Parental expectation)로, 부모가 자신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차원은 부모의 비판(Parental criticism)으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우며 일을 잘 해내지 못해서 부모로부터 비난 받아왔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수행에 대한 의심(doubts about action) 차원은 자신이 일을 끝마칠 능력이 있는가를 반복해서 의심하고 일을 만족스럽게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반영한다. 여섯 번째 차원은 조직화(organization)로, 정리정돈과 조직화

를 좋아하고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Frost 등이 구분한 다차원적 완벽주의를 따르고자한다.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는 긍정적 완벽주의로 구분되므로 제외하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된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중에서 완벽주의의 발달적 차원과 관련 있는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을 제외한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차원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하위 차원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만족스럽지 못한 수행에 대한 뿌리 깊은 수치심을 느끼고,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높힌다고 보고하였다[7]. 또한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의 불일치도나 의무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의 불일치도는 낮지만 이상적 자기의 내용 자체가 병리적이라 하였고[18][23][24], 박동숙은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이 완벽주의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9].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완벽주의와 자기에 모두 이상적 자기, 현실적 자기, 의무적 자기 개념 사이의 일치, 불일치도 즉, 거대자기 환상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내현적 자기에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대한 공동의존성과 내현적 자기에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관계와 공동의존성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에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제시한 이론적 연구들을 검증하는 한편, 공동의존성으로 대학생활에 어려워하는 내담자들의 성장 과정과 성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효과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상담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동의존성이 내현적 자기에를 매개로 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생의 공동의존성, 내현적 자기에,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공동의존성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내현적 자기에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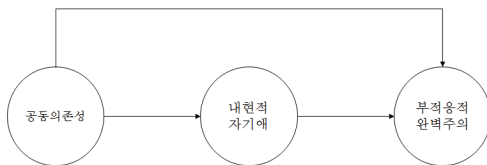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대전광역시와 경북 소재 4년제 대학의 남녀 대학생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만학도(40세 이상) 2부, 불성실한 답변 38부를 제외하고 16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수업시간을 할애 받아 실시되었다.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58명(36.3%), 여자가 102명(63.8%)이며, 연령 분포는 18세에서 25세이고 평균연령은 19.74세이다. 학년분포는 1학년 120명(75.0%), 2학년 30명(18.8%), 3학년 7명(4.4%), 4학년 3명(1.9%)이다.

#### 3.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 3.2.1 공동의존성 척도(COAT)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공동의존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Hughes-Hammer, Martzolf과 Zeller에 의해 개발된 공동의존 사정검사 COAT(the Codependency Assessment Test)를 사용하였다[27]. 이 척도는 총 25문항이며, Wegscheider-Cruse와 Cruse가 정의한 공동의존의 핵심증상인 타인초점/자기무시(5문항), 낮은 가치감(5문항), 자기 숨기기(5문항), 원가족 특성(5문항), 의학적 문제(5문항)의 5가지 영역으로 공동의존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28].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 그렇다(3점)’, ‘자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의존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  $\alpha = .752$ 이었다. 하위요인별로는 각각 타인초점/자기무시  $\alpha = .776$ , 낮은 가치감  $\alpha = .633$ , 자기 숨기기  $\alpha = .696$ , 원가족 특성  $\alpha = .698$ , 의료문제  $\alpha = .712$ 으로 나타났다.

##### 3.2.2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

본 연구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Arkter와 Thomson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 [17]을 참고하여 강선희와 정남운이 개발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16]. 이 척도는 총 45문항이며, 하위요인으로는 목표불안정(9문항),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았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목표불안  $\alpha = .793$ , 인정욕구

$\alpha = .811$ , 자기중심  $\alpha = .803$ , 자기취약  $\alpha = .731$ , 자신 부족  $\alpha = .792$ 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alpha = .823$ 으로 나타났다.

### 3.2.3 부적응적 완벽주의 척도(FMPS)

Frost 등은 완벽주의를 다차원적으로 보고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의 6개 하위차원으로 FMPS(Frost-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개발하였다[22]. FMPS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개인 기준  $\alpha = .894$ , 부모기대  $\alpha = .890$ , 부모비난  $\alpha = .913$ , 실수염려  $\alpha = .883$ , 수행의심  $\alpha = .897$ , 조직화  $\alpha = .906$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척도의 전체 신뢰도  $\alpha = .913$ 로 나타났다.

### 3.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 진행 후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값)를 산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 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가 대학생의 공동의존성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매개 회귀분석 기법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따랐다.

## 4. 결 과

### 4.1 공동의존성,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 간의 관계 검증

대학생의 공동의존성과 내현적 자기애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관계에서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성별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의 평균이 남자(M=2.924,  $p < .05$ )가 높게 나타났으나 공동의존성 및 내현적 자기애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변인 모두에서 학년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별에서 내현적 자기애에서는 천주교(M=3.443,  $p < .05$ )가 기타 종교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인 간의 차이 (N=160)  
Table 1. Difference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ain variables (N=160)

변인	구분	공동의존성		내현적 자기애		부적응적 완벽주의	
		M	SD	M	SD	M	SD
성별	남성	2.313	.625	2.810	.497	2.924	.498
	여성	2.228	.592	2.762	.564	2.722	.583
	<i>t</i>	0.846		0.580		2.455*	
학년 별	1학년(a)	2.276	.602	2.802	.547	2.858	.558
	2학년(b)	2.285	.662	2.709	.537	2.689	.516
	3학년(c)	2.023	.416	2.590	.459	2.419	.712
	4학년(d)	1.840	.144	3.024	.471	2.462	.312
	F	0.890		0.728		2.309	
	Scheffe	-		-		-	
종교 별	기독교(a)	2.195	.572	2.718	.528	2.709	.600
	천주교(b)	2.840	.558	3.443	.403	3.279	.457
	불교(c)	2.174	.728	2.668	.517	2.933	.591
	무교(d)	2.267	.594	2.785	.531	2.797	.530
	F	2.184		3.609*		2.219	
	Scheffe	-		b>a,c,d		-	

\* $p < .05$

또한, 대학생의 공동의존성, 내현적 자기애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공동의존성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r = .482$ ,  $p < .001$ )와는 보통 수준의 정적상관, 내현적 자기애( $r = .605$ ,

$p<.001$ )와는 보통 수준의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2. 주요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N=160)  
Table 2. Correlation of main variables (N=160)

변인	공동의존성	내현적 자기에	부적응적 완벽주의
공동의존성	-		
내현적 자기에	.605***	-	
부적응적 완벽주의	.482***	.555***	-
평균(M)	2.259	2.779	2.800
표준편차(SD)	.603	.539	.562

\*\*\* $p<.001$

또한 내현적 자기에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상관( $r=.555, p<.001$ )도 보통 수준의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공동의존성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내현적 자기에를 통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4.2 내현적 자기에의 매개효과 검증

내현적 자기에가 대학생의 공동의존성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모든 절차에서 표준화계수와 수정된  $R^2$ 가 사용되었다.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단계별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공동의존성이 내현적 자기에에 유의한 영향( $\beta=.605, p<.001$ )을 미쳤다. 2단계에서 공동의존성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 $\beta=.482, p<.001$ )였고,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공동의존성과 매개변수인 내현적 자기에가 동시에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공동의존성과 내현적 자기에에는 각각( $\beta=.231, p<.01, \beta=.416, p<.001$ )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내현적 자기에 매개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공동의존성이 종속변수인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효과가 적어져야 하는데, 3단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여 내현적 자기에에는 공동의존성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test 결과  $Z=2.711$ 로 나타났으며  $Z$ 값이  $+1.965$ 이상,  $-1.965$ 이하의 범위에 존재하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 모두 공동의존성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관

표 3. 내현적 자기에의 매개효과 검증 (N = 160)  
Table 3. Mediating effect of covert narcissism (N=160)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beta$	t	$R^2$	F
1	공동의존성	내현적 자기에	0.541	0.057	0.605	11.7291***	0.366	91.405***
2	공동의존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0.449	0.065	0.482	6.923***	0.233	47.931***
3	공동의존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0.215	0.076	0.231	2.838**	0.342	40.841***
	내현적 자기에	부적응적 완벽주의	0.433	0.085	0.416	5.111***		

\*\* $p<.01, ***p<.001$

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의존성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 외에도 내현적 자기에의 목표불안정, 인정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과 자기중심적이며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공동의존성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현화된 자기에와의 관계성을 탐색하여 공동의존성향의 대학생들의 적응을 돕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6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공동의존성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공동의존성과 내현적 자기에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 간의 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종속변인 모두에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공동의존성이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의 성향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성희의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타인을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자신보다는 타인의 요구나 행동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게 되는 자기희생적 돌봄의 특성을 갖는 공동의존성이 내현적 자기에와의 관련성이 있음을 지지한다. 그리고 공동의존자들은 항상 그들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 불안정과 생각이나 느낌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정서적 고통을 호소한다[1]는 Mendenhall과 콕윅 등의 연구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4][5]. 또한 내현적 자기에

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 박동숙의 연구와도 일치하였고[9], 내현적 자기에자들의 민감성과 취약성으로 인해 타인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8]과도 일치한다. 이와 같이 공동의존성향자들은 타인의 평가나 반응을 통해 의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려하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갈망한다. 또한 공동의존성향자들은 항상 만족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하려하기 때문에 부적응적 완벽주의라는 행동양식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공동의존성향이 내현적 자기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완벽주의에 영향을 줄 때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작용한다는 것을 검증해 볼 수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공동의존성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공동의존성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내현적 자기에를 매개로 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공동의존성향은 심리적 또는 신체적 긴장상태를 지속시키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연속될수록 우울, 불안, 좌절감 및 무망감 등의 정서적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의 기능적 측면인 과제 수행, 친밀한 인간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타인에 지나치게 의존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요구나 행동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나 행동에 중점을 두게 되며, 자기희생적 돌봄과 과도한 책임감, 강박적 행동으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의존성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정을 지나치게 원하지만 스스로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 불안을 경험하는 내현적 자기

에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행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 설정으로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면 자기에게 비난적 평가를 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며, 자신의 삶과 활동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일상적인 삶에서의 기능들인 과업수행, 인간관계, 사회적 활동 및 여가활동 등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공동의존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악순환의 경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상담자는 공동의존성향이 있는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내담자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수준정도를 예측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현적 자기에의 수준과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의 수준 정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여 공동의존성 내담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전, 경북 일부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추후에는 표집을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확률적 표집에 근거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공동의존성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와 그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적, 일상생활적인 측면의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과 더불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보다 면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상담 장면에서 공동의존성향의 대학생들의 정신적 성장을 위한 정서, 기능, 인지 등의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또 상담자가 어떤 개입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s

- [1] S-H. Lee, *The codependency decreas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Gyeongbuk University, 2010.
- [2] C. L. Whitfield, *Co-dependency: healing the human condition: The new paradigm for helping professionals and people in recovery*. Deerfield Beach FL: Health Communications; pp. 8-9. 1991.
- [3] J. A. Fuller, R. M. Warner, *Family stressors as Predictors of codependency*. Genet Soc Gen Psychol Monogr. Vol. 126, No. 1, pp. 5-22. 2000.
- [4] U-H. Gaek, and J-U. Son, K-H. Han, C-S. Park, J-R. Kim, B-N. Kim, B-J. Kim, Y-H. Gang, and H-L. Ha, *The relationships of codependency with family stressors in childhood and psych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Vol. 9, No. 1, 2003.
- [5] W. Mendenhall, *Codependency definitions and dynamics*. *Alcoholic Treatment Quarterly*, Vol. 6, pp. 3-17. 1989.
- [6] W-H. Lee, and C-Y. Ahn,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4 No. 1, 2005.
- [7] H-S. Lee, *(The) relationship of covert narcissism, shame and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2011.
- [8] J-Y. Kim,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between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and social anxiety*, dissertation, Junnam University, 2010.
- [9] D-S. Park, *(The) relevance between covert narcissism, anxiety, perfectionism and*

-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dissertation, Suongsin Woman University, 2004.
- [10] A. T. Carson, and R. C. Baker, *Psychological correlates of codependency in women*. Substance Use & Misuse, Vol. 29, pp. 395-407. 1994.
- [11] M. Crothers, and L. W. Warren, *Parental antecedents of adult codependenc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52, pp. 231-239. 1996.
- [12] H. J. Gotham, and K. J. Sher, *Do codependent traits involve more than basic dimension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 57, No. 34. 1996.
- [13] Irwin, H. J. *Codependency, Narcissism, and childhood trauma*.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51, pp. 658-665. 1995.
- [14] N. R. Lindley, P. J. Giordano, and E. D. Hammer, *Codependency:predictors and psychometric issu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55, pp. 59-64. 1999.
- [15] S-H. Gang, *The study of christians 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dissertation*, Hanse University, 2005.
- [16] S-H. Kang, and N-W. Jou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vert narcissism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4 No. 4, 2002.
- [17] S. Akhtar, and A. Thompson,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39, No. 1, pp. 12-20. 1982.
- [18] S-J. Han, *Overt and covert self-relevant cognition of narcissist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 [19] A. M. Cooper,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gstam(Eds.),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London: Jason Aronson Inc. pp. 53-74 2000.
- [20] P. Wink,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No. 4, pp. 446-462. 1991.
- [21] H.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97.
- [22] R. O. Frost, P. Marten, C. Lahart, and R. Rosenberg,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 14, pp. 449-468. 1990.
- [23] R. A. Emmons,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Vol. 48, No. 3, pp. 291-299. 1984.
- [24] R. Raskin, and H. Terry,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the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4, No. 5, pp. 890-902. 1988.
- [25] Freud, S.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th Press. 1957.
- [26] B. Sorotzkin, *The quest for perfection: A voiding guilt or avoiding sham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Vol. 22, No. 3, pp. 564-571. 1985.
- [27] C. Hughes-Hammer, D. S. Martsof, and R. A. Zeller.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Codependency Assessment Tool*.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Vol. 12, No. 5. pp. 264-272. 1988.
- [28] S. Wegscheider-Cruse, and J. Cruse. *Understanding co-dependency. deerfield beach*. FL: Health Communications. 1990.

## 대학생의 공동의존성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박희룡

김천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공동의존성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동의존성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이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료는 경상북도와 대전 등에 위치한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대학생의 공동의존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내현적 자기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공동의존성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애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내현적 자기애는 대학생의 공동의존성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이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공동의존성에 대한 연구로서 내현적 자기애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공동의존성의 특성들이 기존 연구들에 밝혀진 것처럼 알코올중독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공동의존성의 특성들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공동의존성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하고 있다는 것은 타인의 인정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공동의존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공동의존성이 내현적 자기애를 통하여 더욱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며, 또다시 공동의존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이와 같은 내담자의 정신건강적인 측면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담학적 접근을 논의하고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김천대학교의 2015학년도 학술연구 조성비를 지원 받음.



**Hee Ryoung Park** received the Dh.D degree in Counseling at Hannam University in 2015. I has been served a professor in Gimcheon University from 1997 to now. I has been served a professor in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ince 2010. My research interests is that counseling psychology is the study. I am a Active membership of the KKITS.

*E-mail address:* hrpark@gimcheon.ac.kr